

“택배노동자 파업, 민주노총 투쟁으로 만들자”

CJ 재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금속노조, “택배노동자 승리까지 연대하겠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맞서 49일째 총파업과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들이 택배 노동자 투쟁에 힘을 보탤다.

민주노총은 2월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 거부, 택배 대란 사태 주범, CJ 재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과 노조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위원회, 사무처 등이 함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CJ 자본은 소중한 노동자 목숨값을 빼앗으려 한다. 노동자 목숨값을 부의 대물림에 쓰려는 재벌 탐욕을 막아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 연대사에서 “노동자 목숨값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CJ대한통운 자본가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이 투쟁은 6만



6천 모든 택배 노동자의 운명을 건 투쟁이다. 금속노동자의 투쟁이고, 재벌 탐욕으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다”라며 “이 투쟁은 민주노총 전면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금속노조가 승리까지 함께 싸우겠다”라고 약속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6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의 핵심은 ▲사측이 책임지고 분류작업 개선 ▲요금 인상분을 노동자 처우개선에 최우선 활용 등 두 가지다.

합의 이후 CJ대한통운은 최근까지 택배비를 박스당 240원가량 인상했다. 인상분 총액은 5,000억 원에 달한다. CJ 자본은 5,000억 원을 분류작업 개선과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에 써야 하지만, 60%에 달하는 3,000억 원을 먹었다.

이수진 택배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은 “노조는 택배비 인상분 사용처를 검증하면 파업 철회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나 이조차 거부했다”라고 규탄했다.

택배노조의 문제 제기에 CJ 자본은 “택배 요금 인상분은 140원이고 이중 절반인 70원을 택배기사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자체 조사한 결과 택배 요금 인상분은 242.5원이고, 이중 수수료 인상분은 40.2원으로 전체 인상분의 16.6%에 불과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3,000억 원 추가이윤 과로사 돈벌이 중단 ▲당일배송, 주6일제 등 독소조항 부속합의서 철회 ▲저상탑차 문제 해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작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월 14일 설 택배 대란과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CJ대한통운에 ‘요금 인상분 사용처에 관한 공신력 있는 검증에 응하면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으나, 사측은 대화를 거부한 채 노조과파 의지를 드러냈다.

2월 10일부터 200여 명의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서울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모비스전동화지회와 함께 싸운다”

울산 노동당·정의당·진보당 연대투쟁 선언 ...
 “송철호 시장, 이화산단 비정규직 사태 해결 나서라”

노동당·정의당·진보당 등 울산의 진보 세 당이 이화산단의 현대모비스전동화지회 차별과 착취 등 문제해결에 함께 나선다고 선언했다. 세 정당은 송철호 시장에게 당장 사태파악과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노동당·정의당·진보당은 2월 10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든든한 울산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자랑한 NVH코리아가 절망만 남은 지옥 같은 비정규직 양산 공장이 됐다”라고 규탄했다.

울산 이화산업단지 NVH코리아 공장은 2019년 현대모비스가 3,300억 원을 투자해 만들었다. 연간 10만대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시스템을 생산하는 친환경차 부품공장이다.

NVH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개월 계약, 문자 해고, 작업 시 휴대전화 강제 수거, 복장 검열, 작업 인원 축소, 작업 떠넘기기, 임금 차등 지급 등 원청의 갑질을 참다못해 올해 1월 2일 금속노조 지회를 세웠다.

원청과 업체는 지회 설립을 눈치 채고 탄압 수단을 총동원해 노조파괴에 나섰다. 일대일 면담, 감금, 면도칼 협박, 공장 출입금지, 한국노총 노조 가입 회유, 조·반장 수당 미끼 탈퇴서 강요 등 모든 노조파괴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노조와 노동당·정의당·진보당은

기자회견에서 “이화산단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착취와 차별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이용한 이윤축적 전략이 부른 참사다”라고 지적했다. 진보정당들은 현대차그룹이 하청구조와 무노조 전략으로 불법파견 시비를 피하고, 정의선을 위해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노동당·정의당·진보당은

“부당노동행위, 하청 다단계, 임금 차별이 송철호 시장이 약속한 좋은 일자리인가” 라면서 “이화산단의 비참한 비정규직 사태를 해결하고 진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진보정당들과 노조 울산지부는 현대모비스 NVH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차별 실상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싸운다고 선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56차 정기대의원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56차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

노조 규약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5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 아 래 —

- 일 시: 2022년 3월 7일(월) 13시
- 장 소: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 안 건
 - 안건1. 11기 2년차 사업평가(안) 및 결산 보고 승인 건
 - 안건2. 12기 1년차 사업계획 및 2022년 투쟁방침(안) 승인 건
 - 안건3. 12기 1년차 사업 예산(안) 승인 건
 - 안건4. 쟁의적립금 사용 승인 건
 - 안건5. 민주노총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기준(안) 승인 건
 - 안건6. 감사위원 선출 건
 - 안건7. 결의문 채택 건

2022년 2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장혁

